

“한국 신속대응팀, 선박 진입 실종자 수색 예정”

외교부 “한-헝가리 수상 수색 등 공조 계속”

헝가리 경찰 “인력·장비 늘려”...유람선 침몰 가해 선장 석방

외교부는 12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했다 인양된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 내부로 한국 신속대응팀이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헝가리 당국은 전날 인양한 침몰 선박을 체펠섬으로 옮긴 뒤 경찰 수사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현지에 파견된 한국 신속대응팀은 선박의 정밀 수색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헝가리 경찰은 당초 이를 수사 참여로 여겨 공동 수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 측은 수사 참여가 아니라 인양한 선박 내 실종자 수색을 위한 진입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를 헝가리 측이 받아들여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한국시각 오후 5시)께 한국 신속대응팀이 선박에

진입해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허블레아니’ 호가 인양되면서 추가로 한국인 실종자 3명의 시신이 발견됐지만, 실종자 4명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과 헝가리 양국은 선박 인양 뒤에도 수상 수색 등 공조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헝가리 경찰도 11일(현지시간) 유람선 허블레아니 인양 작업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 정보로는 4명이 아직 실종 상태에 있다”며 “수색 노력을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수색 노력을 배로 늘린다는 의미에 대해 경찰 대변인은 “인력과 헬리콥터, 보트 등 장비를 배로 늘리겠다는 뜻”이라며 “아직 선체 내부에 실종자가 있

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단체관광객이 탄 유람선을 추돌한 크루즈선 바이킹 시킨호의 우크라이나인 선장이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이날 ‘허블레아니호(號)’를 추돌한 크루즈선 ‘바이킹 시킨호(號)’의 선장 ‘유리 C.’를 보석으로 석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헝가리 경찰은 크루즈선 선장의 보석 결정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사실을 이날 한국 법무협력관에게 전달했다.

크루즈선 선장은 지난달 29일 밤 앞서가던 허블레아니를 추돌한 후 구금됐으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1일 정식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크루즈선 선장을 과실에 의한 다수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헝가리법원은 그러나 선장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보석금 1500만 포린트(6200만원 상당)를 내고,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었다.

검찰은 이에 이의를 제기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헝가리 수사당국이 ‘가해 선박’인 크루즈선을 억류하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허용한 데 이어 법원이 중대 과실 혐의를 받는 선장까지 석방함에 따라 수사가 마뒀했다는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침몰 사고를 당한 허블레아니에는 관광객 등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이 타고 있었다. 한국인 관광객 7명은 사고 당일 구조됐지만 7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9명이 실종됐다.

11일 인양 중 수습한 한국인 추정 시신 3구가 모두 한국인 탑승객으로 확인되면서 사망자는 총 22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4명이 됐다. /연합뉴스

전남도, 동부권 청사 유치 실패 지자체 지원

여수·광양·목포 등 지자체 다른 기관 유치 적극 지원

전남도가 오는 2022년 순천 신대지구 내에 동부권 통합청사와 함께 여수, 광양, 목포 등 각 시·군에 들어서는 전남도 관련 시설물의 차질없는 건립을 위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청사를 유치하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 유치, 지역 현안사업 등 다각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12일 “올 하반기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초 실시설계를 착수해 하반기에 착공, 2022년 준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325억원으로, 3만3000여㎡(1만평) 부지에 1만여㎡(3000평) 건축 규모다. 동부권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부권 통합청사 입지가 순천 신대지구 일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전남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건립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전남도는 여수에 ‘청소년 해양교육원’,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시청자 미디어센터’,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광양에 ‘도립미술관’, 목포에 ‘전남 통일센터’, ‘전남청소년지원센터’, ‘전남스마일센터’ 등의 건립을 추진중이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지역 전문 연구기관 광주전남연구원 에 기준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구성하도록 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도록 노력했다. 새로 건립될 동부권 통합청사는 동부권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민원실,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공간, 지역 주민의 소통·문화 공간, 열린 회의실 등을 갖추게 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동부권 통합청사가 행정기관으로서 기능을 넘어 동부권 통합발전과 화합의 상징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시군에 ‘지역 성장 전략사업’ 매년 400억 투자

전남도가 지역 미래성장을 이끌 대규모 지역 발전 프로젝트인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을 매년 400억원씩 투자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라남도 대부분의 대규모 지역발전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공모사업은 전국 단위로 1~2개 선정에 그쳐 에너지산업,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바이오 메디컬, 드론 등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

전남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당 100억원 규모로 매년 4개 이상의 사업을 선정해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6월께 시·군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까지 2개월여 사업 발굴 기간을 갖는다. 8월께 사업 선정과 협약 체결을 거쳐 2020년 본예산에 도비 50%를 지원, 1월부터 시·군별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용섭 시장, 광주시 인권정책 유엔 소개 출국

유럽기업 투자 유치 협약도

광주시의 인권정책이 유엔(UN·국제연합) 회원국들에게 모범사례로 소개된다. 광주시는 12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유엔 인권협의회의 참석차 13일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유엔 인권이사회 사무국인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와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 관련 세계지방정부연합 위원회(UCLG-CSIPDHR)가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유엔 지방정부와 인권 협의회’ 개최 연설자로 이 시장을 초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회는 ‘인권 증진·보호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일어난다. 이 시장은 유엔과 공동주최 기관인 세계지방정부연합 위원회의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권도시 광주, 그리고 지구적 협력’에 관한 주제로 개회연설을 한다. 이 자리에는 제네바, 로마, 비엔나, 워싱턴, 바르셀로나, 플라멩코 등 도시, 카트만두, 울란바토르, 쟌버 등 인권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 시장은 출장기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유럽소재 기업과 투자 유치 협약도 체결한다. 15~16일에는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 관계자들을 만나 ‘2020광주비엔날레’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18일 귀국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수영대회 성공 개최 손님맞이 범시민 실천대회 12일 오전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손님맞이 범시민 실천대회가 열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수영대회 기간 상무지구서 맥주축제 열린다

다음달 11일~20일, 8월 9일~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 광장에서 맥주 축제가 열린다.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따르면 수영대회 개막 전날인 11일부터 20일까지 ‘마셔 Brewer’, 8월 9일부터 18일까지 ‘일

맥상통’이라는 이름의 맥주 축제가 열린다.

무더위를 감안해 축제는 매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다.

‘마셔 Brewer’는 ‘맥주를 마셔 불어’라는 전라도 사투리와 양조장을 뜻하는

‘Brewer’의 합성어이며, ‘일맥상통’은 ‘일주일간 맥주와 함께 상무지구에서 열리는 통 큰 야시장’이라는 말에서 첫 글자를 따왔다.

축제장에서는 광주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수제맥주와 세계 각국에 생산된 수입맥주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고 센터는 전했다. 야시장, 푸드트럭, 플리마켓 등이 함께 마련돼 맥주와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축제 기간 특수조명과 음향시설이 어우러진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수영대회 선수와 참가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는 상점도 운영한다.

정중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이번 맥주 축제는 수영대회를 찾는 내외국인을 환영하고 대회 성공을 위해 마련됐다”며 “시민들과 수영대회를 보러 온 국외 방문객들에게 추억과 낭만을 선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